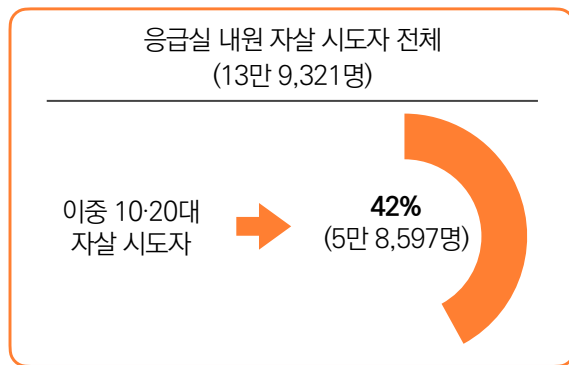
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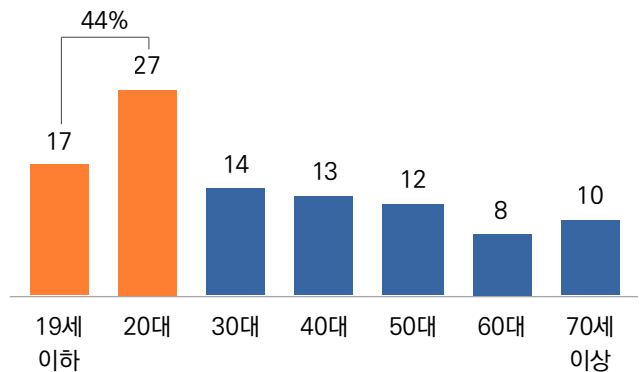
[응급실 내원 10·20대 자살 시도자 실태] 응급실 내원 자살 시도자 10·20대 비중 42%!

- 9월 10일은 '세계 자살 예방의 날'이다. 우리나라는 2004년 이후 줄곧 OECD 국가 중 자살률 1위를 기록하고 있으며, 최근 청소년/청년층 자살 문제도 사회적 이유로 떠오르고 있다. 이에 '자살 시도자의 응급실 내원자 현황 자료'(최보윤/박희승 의원실)를 통해 10·20대 자살 시도 실태를 살펴본다.
- 2020년 1월부터 2025년 6월까지 응급실에 내원한 자살 시도자는 약 13만 9천 명으로 집계되었으며, 이 가운데 10·20대는 5만 8,597명으로 전체의 42%에 달했다.
- 응급실 내원 자살 시도자 연령대별 분포(2021~2023년)를 보면 '20대 이하'는 44~45% 수준을 꾸준히 유지해, 청소년/청년층의 자살 시도가 구조적 문제임을 보여준다.

[그림] 응급실 내원 10·20대 자살 시도자 비중
(2020.01~2025.06 기준)



[그림] 응급실 내원 자살 시도자 연령대별 비중 (2023, %)



※출처 : 중앙일보, 아프니까 청춘? 1020 심각하다...자살시도 응급실행 42%가 이들, 2025.09.08. (<https://www.joongang.co.kr/article/25365061>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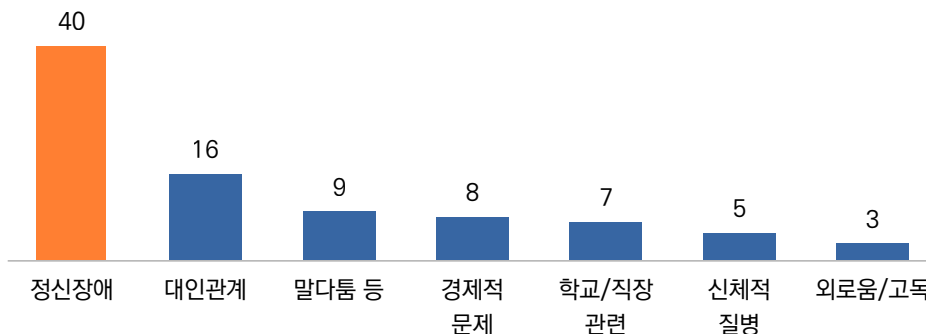
※원출처 : 국민의힘 최보윤 의원실, 응급실 기반 자살시도자 사후관리사업 결과, 2025.09./더불어민주당 박희승 의원, 응급실 기반 자살시도자 내원자 현황, 2024.09.

Note) 합이 100이 안되는 것은 Rounding Error로 인한 것임.

10·20대 자살 시도 동기, '정신장애'가 최대!

- 응급실에 내원한 10·20대 자살 시도자의 동기를 살펴보면, '정신장애' 요인이 40%로 가장 컸고, 이어 '대인관계'(16%), '말다툼 등'(9%), '경제적 문제'(8%)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. 이는 청소년/청년층 자살 시도에서 정신건강 관리의 중요성이 절실함을 보여준다.

[그림] 응급실 내원 자살 시도자의 자살 시도 동기 (2025, 복수응답, 상위 7개, %)



※출처 : 중앙일보, 아프니까 청춘? 1020 심각하다...자살시도 응급실행 42%가 이들, 2025.09.08. (<https://www.joongang.co.kr/article/25365061>)